



윤경순, 봄날의 동행, 도자기, 27 x 12.5 cm, 2023

두 분의 봄날 같은 생명 가득한 사랑으로 어둡지만 곳곳이 시대적 소명을 이루는 동행의 삶에 감사드립니다.



윤경순, 따사론 봄날, 도자기, 27 x 12.5 cm, 2023

시대의 굴곡진 역사속에 아픔과 슬픔을 온몸으로 겪으신 두 분이지만, 두 분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했기에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봄날 같은 삶이셨습니다.

부부이자  
같은  
두 분의  
해보고  
걸어가



윤경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도자기, 83 X 63cm, 2023

문목사님의 친구이자 생명을 사랑하고 시로 노래했던 윤동주 시인의 서시. 그 서시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란 시구처럼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신 문목사님의 마음을 어둠 가득한 밤하늘(흑토로 까만 구슬로 표현)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D1백자로 새하얀 별로 표현)이 빛나는 것처럼 도자기 모빌로 표현해보았습니다.

부부이자 동지요, 동역자이자 친구  
같은 삶을 사신 두 분.  
두 분의 별칭을 통해 삶을 생각  
해보고 "봄"과 같은 삶을 사시고  
걸어가신 두 분의 그 길을 살포시  
밟아봅니다.

윤경순, 양들은 풀을 뜯고, 도자기, 31 X 24cm, 2023

성경의 이사야서의 하나님 나라의 표현처럼 사자들이 어린양과 뛰놀고 양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거님과 빨강색과 파랑색의 섞인 보라색 꽃이 만발하게 피어남을 표현함으로 한반도에 평화통일을 염원했던 문목사님의 소원을 바흐(Bach)의 연주곡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Sheep may safely graze) 제목과 매치시켜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